



올림픽 메달을 따면 사진기자들이 반드시 요구하는 포즈가 메달 깨물기다. 쇼트트랙 남자 1500m 우승자 임효준(왼쪽)과 16일 설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금메달을 선사한 스키레톤의 윤성빈(가운데) 17일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한 최민정이 모두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보상으로 메달연금을 받는다. 평창 |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4500만원+α'...연금점수 260점 최민정, 평창 잭팟!

메달연금 110점까지 매달 100만원 상한선 최민정, 110점 초과해 골 일시장려금 받아 첫 손 임효준·윤성빈, 월정금·일시금 선택 이상화, 빙속 여자 500m 銀 1050만원 예약

이다. 메달리스트에게 평생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실 체육진흥팀'에서 운영·관리한다.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은 상한액이 100만원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다관왕을 차지한 선수들에게는 초과된 부분을 환산해서 일시금으로 포상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메달리스트들에 주는 연금뿐만 아니라 경기지도자연구비(국제대회 메달획득에 공헌한 감독 코치들에게 주는 돈), 특별보조금,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장애인금, 장애인연금, 국외유학지원금 그리고 체육장학금 등 국가에 공헌한 체육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포상금과 메달연금의 기준 점수는?

메달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기준 점수를 많이 따내야 한다. 올림픽은 금·은·동메달의 경우 메달연금 점수가 각각 90·70·40점으로 책정됐다. 4·5·6위에도 각각 8·4·2점을 준다. 아시안게임은 금은동메달이 각각 10·2·1점이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1·2·3위에게 45·12·7점을 2~3년 주기의 국제대회는 30·7·5점을 준다. 1년 주기 세계대회는 20·5·2점이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저점수는 20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한달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9점은 아쉽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20점을 넘지 못하는 선수들을 위해 특별격려금으로 일시금 450만원을 준다.

연금의 액수는 10점 단위로 달라진다. 누적 평가점수 110점을 채워야 1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올림픽은 금메달의 상징성이 있어 평가점수가 90점이지만 100만원을 준다. 연금은 기준점수를 넘어 지급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혜택을 받는 메달리스트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프로야구 강정호의 경우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연금지급도 중단된다.

●연금의 종류 및 윤성빈·임효준의 선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은 받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매월 받는 '월정금'과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넘어 추가로 받는 일시장려금 등이 있다.

그동안 연금지급 점수가 없었던 스키레톤의 윤성빈과 10일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임효준은 어떻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한 다음에 선택하면 된다. 지금부터 매달 10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6720만원을 받아갈 수도 있다.

올림픽 다관왕 등 꾸준히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한 선수들을 위한 추가보상이 '일시장려금'이다.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면 월정금 100만원 외에 일시장려금을 추가로 준다. 올림픽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으로 평가한다. 금메달은 가치를 높게 평가해 가산 적용을 한다.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따면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따내면 20%의 가산 혜택이 있다.

컬링 같은 단체종목의 경우 경기에 나가지 않더라도 엔트리에만 포함되면 연금혜택이 있다. 다만 병역해택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로 경기에 참여한 선수에게만 혜택을 준다. 병역법은 메달연금과는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화·최민정의 일시장려금은 얼마?

이미 2010 밴쿠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의 경우, 평가점수가 346점이었다.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고 소치 대회 뒤 일시장려금도 받았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70점)을 추가해 연금 누적점수는 416점이다. 일시장려금은 1050만원(7×150만원)이다. 물론 협회에서 주는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에서 주는 포상금은 별도로.

최민정은 평창대회 전까지 올림픽 금메달은 없지만 이미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누적점수 170점을 쌓아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번 쇼트트랙 1500m 금메달로 누적점수는 260점이 됐다. 일시장려금 4500만원(9×500만원)을 받는다. 제주 등에서 추가로 메달을 따내면 일시장려금은 더 커진다.

한편 동·하계 올림픽을 포함해 현재 최고 연금점수는 쇼트트랙의 전설 전이경의 905점이다. 전이경은 일시금을 선택해 3억5000만원을 이미 타갔다.

하계종목은 사격의 황제 진종오가 최고다. 누적 876점이다. 진종오는 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선택했고 일시장려금까지 받았다. 현재 4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매달 나가는 연금이 있

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메달연금 제도의 역사

이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스포츠 스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1971년 김택수 제24대 대한체육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974년 경기력향상연구 복지기금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선수연금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사관급 월급인 10만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의 7만원, 동메달은 사무관급 월급 5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고(故) 손기정은 포함한 19명의 스포츠영웅이 새로운 정책의 적용 대상자였다. 1975년 1월부터 혜택을 받았다.

6년 뒤인 1981년 연금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결정하고 뒤 연금지급액을 대폭 인상했다. 금장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배 상승했고 2년 뒤에는 60만원으로 올랐다. 스포츠를 유난히 사랑했던 전두환 정권의 선심 덕분이다. 체육인들은 편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00년 7월부터는 금메달 월정금 최고지급액을 100만원으로 고정했다. 동시에 연금점수 90점 이상을 쌓은 선수는 초과 점수에 따라 '일시장려금'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총 1550억원의 메달연금이 지급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에 총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충원 기자 marco@donga.com

푸르카드-웬프, 같은 기록 다른 메달 색...왜?

(바이애슬론 남자 15km 매스스타트)

나란히 35분47초3...푸르카드 발이 빨라 스키 아닌 부츠 앞부분이 결승 통과 기준 빙판 종목을 날·썰매 종목은 장비 제각각

로써 푸르카드는 사진 판독 덕분에 이번 대회 바이애슬론 2관왕에 올랐고, 아울러 통산 올림픽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기록했다.

이처럼 올림픽에서는 종목마다 결승선의 통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쇼트트랙의 경우 스케이트 날이 기준이다. 날 앞부분이 라인을 통과하면 골인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날이 빙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서로 몸을 밀치며 순위를 가리는 종목의 특성상 부상 예방을 위한 조치다.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골인 장면은 김동성의 날밀기다.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중국의 리지아준을 추격하던 김동성은 결승선 바로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발을 쪽 내밀어 극적으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후 왼쪽 발을 내밀는 날밀기는 한동안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됐고, 이

를 알아챈 경쟁국 선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결승선 바로 앞에서는 발을 쪽 내밀었다.

스피드스케이팅도 쇼트트랙처럼 날이 기준이지만 차이점은 날이 빙판에서 떨어져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에서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한쪽 발을 앞으로 들어서 미는 소위 '날치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만분의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안간힘이다.

스키는 기본적으로 신체가 기준이다. 이는 선수에 따라 장비의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부츠 앞부분이 기준이면서 한발만 결승선을 통과해도 인정 받는다. 따라서 쇼트트랙의 날밀기처럼 스키 밀기가 자주 등장한다. 반면 알파인 스키는 선수의 두 발이 모두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프리스타일스키는 신체 일부가 통과하면 된다. 단, 스키가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시간이 아닌 거리



18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벌어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남자 15km 매스스타트에서 독일의 시몬 웬프(사진 왼쪽)와 프랑스의 마르탱 푸르카드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결국 사진판독 끝에 금메달은 35분47초3의 푸르카드가 차지했고 웬프는 같은 기록으로 2위를 마크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이애슬론의 결승선 통과 기준인 부츠의 앞부분이었다. 평창 | AP 뉴시스

를 측정하는 스키점프는 스키 또는 신체 가장 먼저 낙하된 곳을 착지 지점으로 삼는다.

스노보드에는 보드 또는 신체의 일부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을 피니시 시점으로 본다. 이 또한 보드와 신체가 떨어지면 안 된다.

윤성빈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스키레톤이나 봅슬레이, 루지 등 시속 150km 안팎의 속도를 자랑하는 썰매 종목은 장비나 신체 일부가 결승선을 통과하면 기록으로 인정을 받는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